설계경기 | Competition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법학관 및 종합체육관
University of Seoul, multi. Lecture Center, Law School and Sports, Complex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실 및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과 교수 및 직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내에 종합강의동과 법학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당선작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장윤규, 신창훈) + 협동원 건축사사무소(김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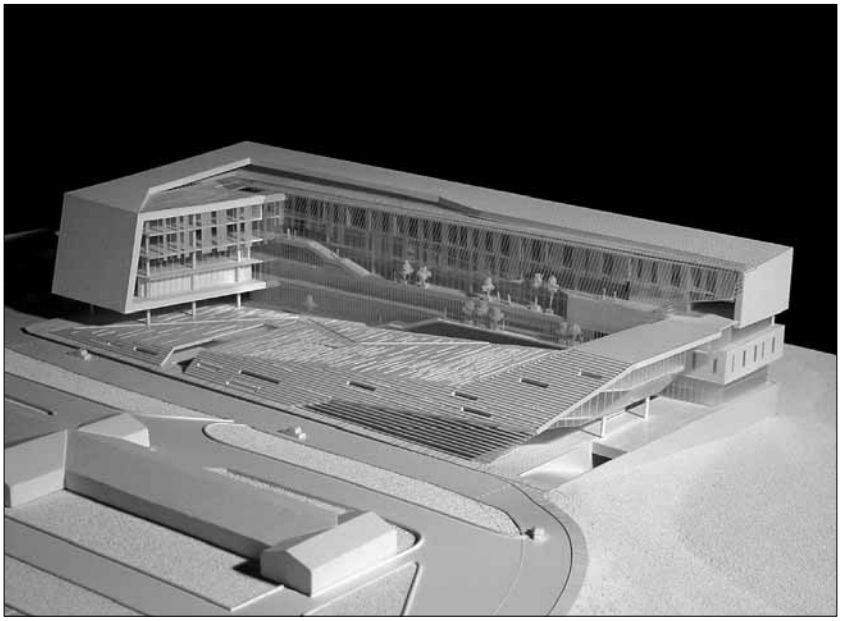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內
대지면적 270,600㎡
※ 건립부지 면적 : 7,603㎡
연 면 적 18,016㎡
종합강의동, 법학관 : 13,223㎡
종합체육관 : 4,793㎡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 계 팀 김우영, 김윤수, 김동찬, 김성민, 이호선

Landscape Plaza

이 계획안의 중요한 배치개념은 주어진 대지 전체를 공공성의 광장 Plaza as Public Space로 해석하고 계획하는데 있다. 진입동선과 경농관 쪽으로 열려진 다목적 기능의 광장을 배려하여 시립대 학생들의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이벤트를 수용하는 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공공성의 광장은 Event Plaza, Landscape Podium, Eco Corridor, Eco valley… 등의 개념에 의해서 구체화 시킨다.

Campus Network

캠퍼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구, 교육, 생활 등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필요가 요구된다. 캠퍼스네트워크는 학교시설과 주변 사회적 요청과 대응하는 공공성의



공간을 제공하는 하나의 틀이다. 주어진 대지는 학교 경계선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곳은 캠퍼스 내의 기존 건물과의 관계, 캠퍼스 밖 바로 앞에 위치한 주변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 내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장소적 특성을 갖는다.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맺어주기 위한 하나의 설정으로 캠퍼스네트워크로서의 광장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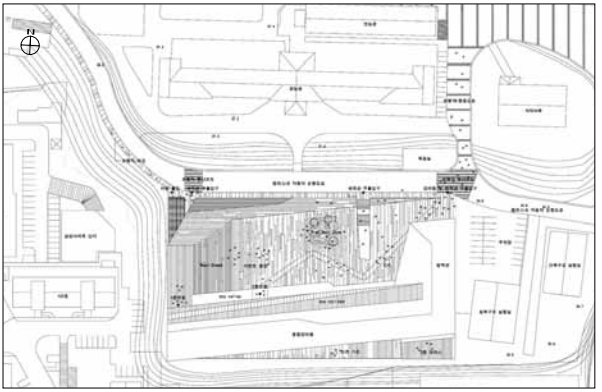
Campus Morphology

캠퍼스내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기존의 콘텍스트와 미래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관을 가지며 계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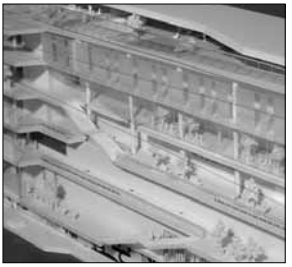
시립대전체의 '캠퍼스 모폴로지' 분석을 통하여 첫째, 축의 개념 둘째, 외부공간 모폴로지 셋째, 공공 공간의 연계 등의 배치개념을 도출한다. 종합강의동, 법학관 및 종합체육관의 캠퍼스 내에서의 공적인 역할과 학교발전의 중심모델로서의 새로운 모폴로지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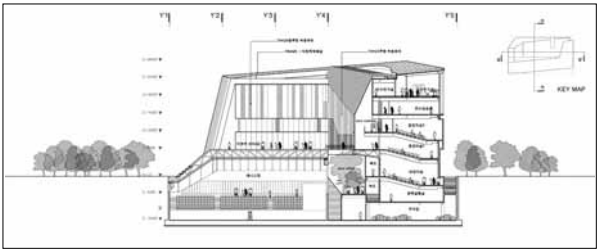
Landscape Podium

대지의 연속으로서의 광장을 구성한다. 대지의 모든 방향으로 연결되는 랜드스케이프 포디움을 제안한다. 수직적인 동선의 연결과 이벤트를 수용하는 적절한 경사의 캠퍼스광장을 구성한다. 자연, 빛, 자연소재 바닥, 물, 등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거대한 휴게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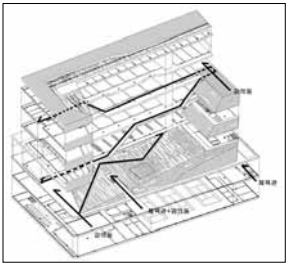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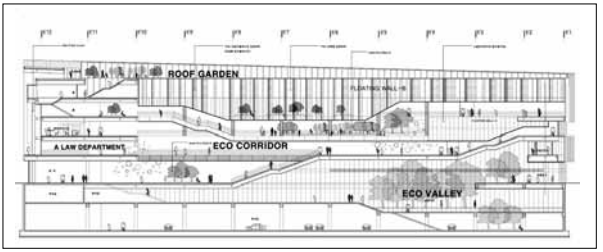




단면도



동선계획



에코복도 입단면도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법학관 및 종합체육관
University of Seoul, multi. Lecture Center, Law School and Sports, Complex

우수작 /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노윤경)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내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603㎡
건축면적 6,176.45㎡
연 면 적 21,722.11㎡
건 폐 율 2.28%
용 적 률 5.98%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 계 팀 단우 : 심우근, 최현영, 오준수, 송창환
우리동인 : 최지호, 이종규, 최정인, 김형곤, 조상은

흔적 되살리기

이 곳은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약 10여년 전만해도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교내 옥외행사들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제는 교내 차량동선에 의해 단절되어 잊혀진 장소가 되었지만 벽돌조 경사지붕으로 된 경농관과 주변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옥외활동을 담았던 오픈스페이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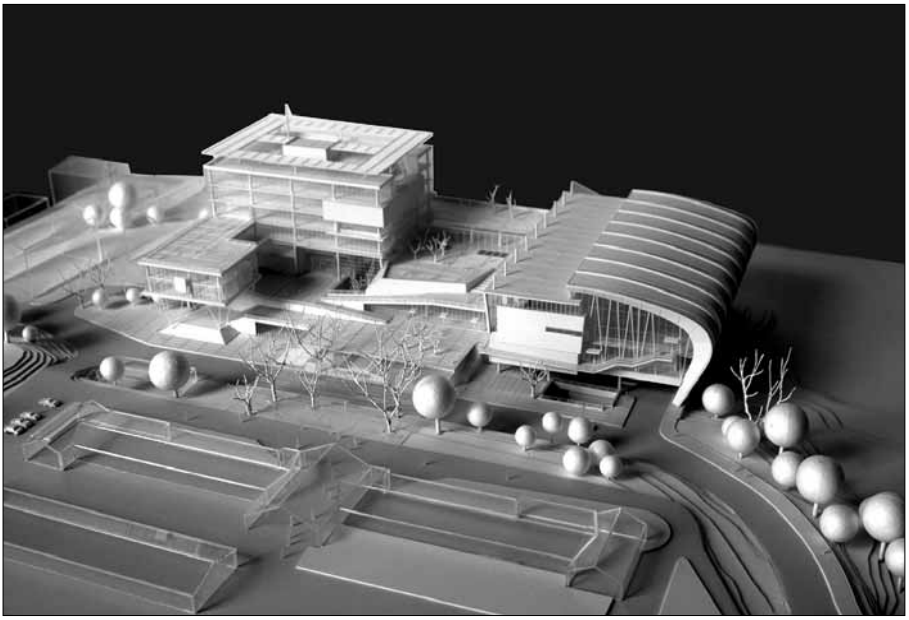
경농관의 바닥높이과의 약 4.0m 높이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크(정든마루)를 만들어 하부의 차량동선과 데크층의 보행동선을수직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부딪힘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경농관 레벨상의 정든마루를 저층부 포디움(Podium)과 연결시켜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 줌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옥외공간이지만 새로운 활동을 담게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줌으로서,이곳을 본래가지고 있던 오픈스페이스로서의장소적 특성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질서만들기

저층부를 형성하고있는 포디움(Podium)은 학생회관 주변의 캠퍼스 코아에서 경농관 주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보행축을 만들어줌으로서 새로이 만들어지게 될 건물과 대응토록 하였다. 또한 포디움에 구성된 랜드스케이프는 자작마루 주변녹지의 흐름과 연계되어 기존 캠퍼스내 질서와 잘 적응하면서 캠퍼스내 또 다른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경계허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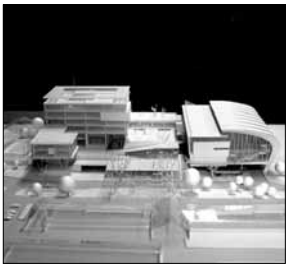
포디움의 다양한 레벨 변화는 저층부에 위치한 중·대형강의실 접근을 입체적으로 유도함으로서 이용자(학생, 교수)들의 접근이 어느 곳에서도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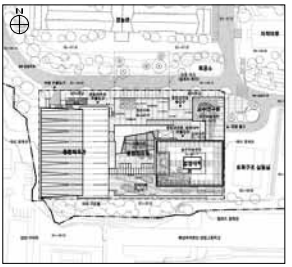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간의 수직적인 트임과 포디움의 자유로운 높이 변화를 통하여 구성된 수평, 수직적 동선 네트워크는 각 실를 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작을 통하여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줌으로서 공간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포디엄의 랜드스케이프를 일어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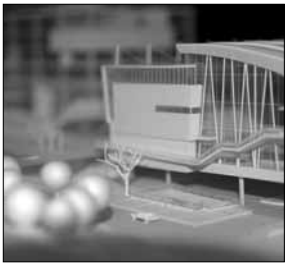
프로그램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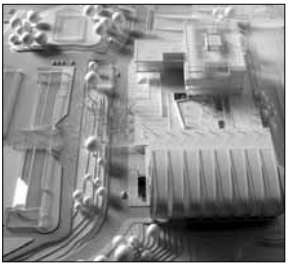
교양학부, 법학부와 체육관의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저층부(1, 2층)에 교양학부동 중·대형 강의실을 둠으로서 동시에 일어나는 동선의 접근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체육관은 외부접근동선을 고려하여 진입부에 두어 외부인의 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체육관 하부(1층)는 필로티를 만들어 진입마당과 주차장으로이용되도록하여 공지의 부족함을 해결코자 하였다. 법학부는 5, 6, 7층에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관은 유리커튼월로 가볍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교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경농관, 자작마루와 조화를 가지면서 학교 진입부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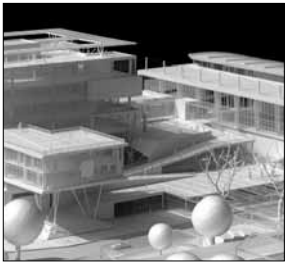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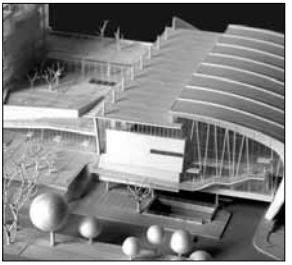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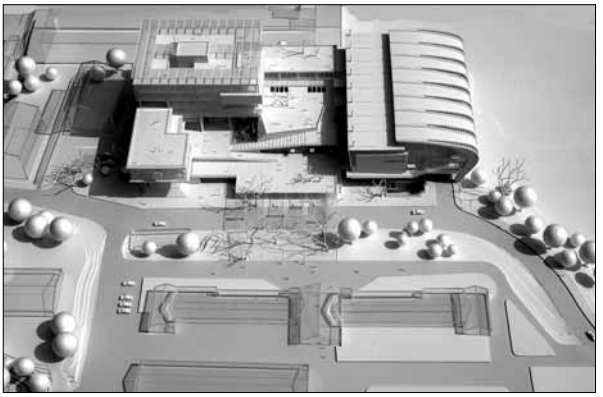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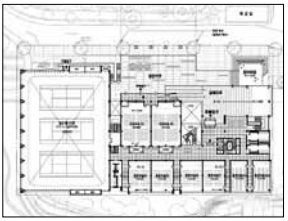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도립노인전문병원
Hospital For The Elderly

경기도는 노령화시대에 요구되는 보건, 의료서비스의 충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전문병원의 시급한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20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 및 요양시설로서 경기 북부 및 인근지역에서의 경기도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바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신동아종합건설(주)' 컨소시엄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건정종합 건축사사무소(노형래)
+ 신동아종합건설(주)(턴키)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146외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340㎡
건축면적 2,678.28㎡
연 면 적 6,806.20㎡
지하 2,070.39㎡, 지상 4,735.81㎡
건 폐 율 32.11%
용 적 률 56.78%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68대(장애인 3대, 응급 2대, 셔틀버스 1대 포함)
외부마감 토석벽돌, 화강석, 적삼목패널, 알루미늄시트, 금속루버, THK24복층유리
설 계 팀 고종준, 주영준,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조용선, 윤영준, 김영주

계획개념

따뜻한 우리집과 같은 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시설로서 입원환자들의 재원기간이 길고 환경적응이나 이동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물리적 치료에 앞서 평소 거주하던 '집'과 같은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노인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환자중심의 병원', '치유환경을 만족하는 병원', '자연친화적 병원', '변화·성장에 대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배치개념

대지는 서측 전면도로에서 동측으로 경사가 심하게 형성되어 도로 진입레벨에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ㄱ'자형태의 간호단위를 엇갈려 배치함으로써 병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정을 두어 정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특히 동측의 대지에 인접한 녹지와 연계해 옥외치유공간을 두어 자연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정으로 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측 치매노인병원과 관리동선의 연결을 위해 서비스 도로를 계획하였다.

평면개념

평면조닝은 크게 외래진료, 관리 · 부대시설, 병동으로 분류해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지하 1층에 외래진료를 두고 2, 3층에 병동부를 두었으며, 그 중간층인 1층에 관리 · 부대시설을 두어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 및 층별 독립성을 고려하였다.
병동부에서 'ㄱ'자형태의 1개 간호단위는 간호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각병실의 보호와 통제가 이루어지며 배회복도는 각 층별 옥외데크와 연결되어 내, 외부 공간을 교차하였다.
긴 배회복도의 사이사이에 알코브를 두어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배회시 지루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담소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입 · 단면개념

입면은 노인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숙하고 따뜻한 느낌의 입면재료를 사용하고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를 차용해 자연속 전통한옥의 이미지를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단면계획은 현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계단식 레벨구성을 하여 옥외공간이 자연스럽게 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주엽어린이 도서관
Juyeop Child Library

고양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친밀감과 자신감, 창의력을 북돋아 주는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입지적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로서 어린이의 연령단계별 형태적 특성과 사회적응력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전용 공간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마당소리 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유한 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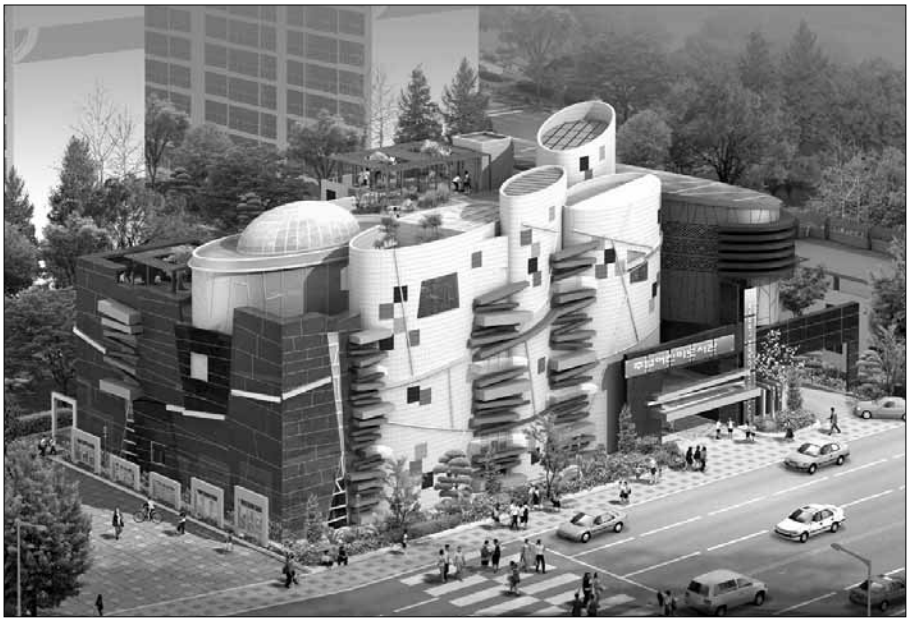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최동호)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2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서관)
용 도 교육연구사설(도서관)
대지면적 1,500㎡
건축면적 747.11㎡
연 면 적 2,048.19㎡
건 폐 율 49.81%
용 적 률 118.25%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 계 팀 이상원

만대루에서 춤을

병산서원에 다가서면 가슴이 설렌다. 무엇보다도 그 좋은 자리에 만대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누마루에 오르면 당장은 자연풍광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펼쳐지는 시각적 흥분이 눈앞을 가로지른다. 그 다음 천천히 몸으로 다가와 손에 닿아 안길 것만 같은 병산의 풍만한 자태와 복례문 앞의 배롱나무 꽃가지의 영글은 모습들, 낙동강 강물 줄기의 넓은 속가슴 속에 담겨있는 한 아름의 꽃다발 향기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신선한 바람소리의 살 냄새들이 촉각적으로 온몸을 감싼다. 이러한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바람의 춤'으로 표현한다면 '촉각적 시각성'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욱 감촉적인 만대루의 살결을 내 몸으로 답한다. 전통건축은 단순히 시각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각적 표상으



로 느껴진다. 나는 이러한 누마루가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한국건축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맨발로 걸어보는 만대루의 촉각성

이러한 만대루를 어린이 도서관의 설계에 중요한 이념으로서 건축화 시키는 것에 몰두하였다. 어린이 도서관의 개념은 정확한 것이어야 하며, 쓸데없는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였다. 그래서 만대루를 그대로 옮기기로 하였다. 정확한 물리적인 크기는 물론이며, 촉각적인 누마루의 손맛을 놓쳐서는 안 되었다. 맨발로 책을 보는 도서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만대루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처음부터 생각한 만대루를 소중한 이념으로서 지속시켜야 한다.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촉각적 수용의 문제를 다룬다. 즉 "건축(물)의 수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사용과 지각, 더 정확히 말하면 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건축은 눈맛 뿐만이 아니라 손맛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시각적 촉각성의 속성을 갖는 건축이 그 '맛의 미학'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념

'주엽 어린이 도서관' 프로젝트는 몇 가지 미적 개념을 갖게 된다. 물론 개념이라는 말은 헤겔식 사유방식대로 나무와 씨앗의 비유에서 보듯이, '씨앗은 개념이고 나무는 실재성'이다. 이처럼 개념은 '실제성과 동시적인 것이며, 그들 규정성의 이념적인 통일'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라는 그릇을 담기에 적절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 개념 1 / 대청마루가 있는 어린이 도서관

주엽 어린이 도서관의 열람실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안마당과 면하여 있는 대청마루이다. 이곳은 안마당을 향하여 열려져 있으며, 병산의 병풍처럼 '공덕의 전시벽'이, 또한 낙동강 줄기처럼 연지가 앞에 펼쳐진다. 물론 누마루로 설계된 '어린이 종합자료 열람기능'이 있는 대청마루는 만대루의 일체를 가져왔다. 바닥의 마루 깔기 패턴까지도.

• 개념 2 / 어린이 도서관의 촉각성 공간

도서관에서 맨발로, 편한 자세로, 내 집 같은 분위기, 나무 바닥에서 누워서 책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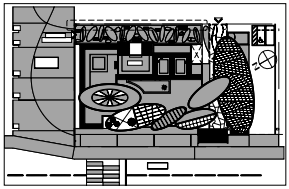
• 개념 3 / 안마당의 책 마당

어린이 도서관 안마당은 잔디가 깔리지 않는 흙바닥으로 되어있다. 책 소리가 나는 안마당은 꿈이라는 상상의 춤을 추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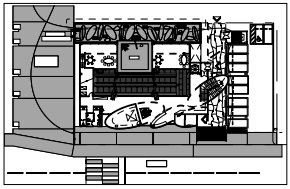
• 개념 4 / 징검다리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 풍습에 정월 대보름 전날에 행하여진 월천공덕은 징검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다. 물론 남모르게 해야 한다. 징검다리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 공동사회에서 핵심이 된다. 월천공덕은 이 시대에서도 어린이에게 교육적 상기라 하여도 좋을 소중한 덕목이다. 물이 흐른다. 그 사이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될'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우리'라는 연꽃을 가슴에 그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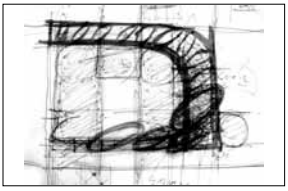
〈글 / 최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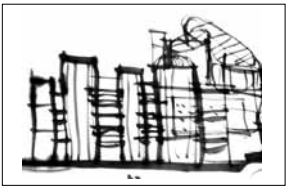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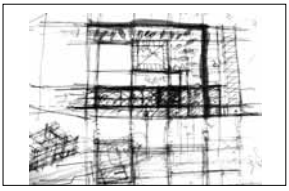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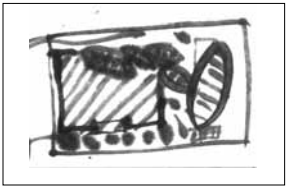
징검다리 연속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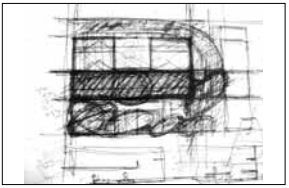
타원형 징검다리의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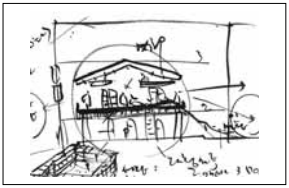
안마당 스케치



월천공덕 징검다리 이미지 스케치



대청마루에서 안마당 이미지



스케치

주엽어린이 도서관
Juyeop Child Library

우수작 / 유한건축사사무소(정승이)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2번지외 1필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서관)
대지면적 1,500㎡
건축면적 742.20㎡
연 면 적 2,087.0㎡
건 폐 율 49.48%
용 적 률 120.33%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 층
외부마감 고밀도목재외장패널, 노출콘크리트, 24로이복층유리창
설 계 팀 김규선, 정지한, 양용석, 고하동

지식. 진리의 평등

지식과 진리는 모두의 것이며, 무상으로 평등하게 누려야하는 것이 도서관의 근본이념이다. 이 평등의 이념이 진리의 자유로움으로 표현되어 어린이에게 이곳이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며 체험하는 평등의 장소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선의 관절 – 길의 뼈대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찻길은 빠르며 냉랭하다. 그리고 시끄럽다.
반면 사람길은 느릿느릿 여유롭다. 그리고 조용하다.
대상은 사람이며 어린이가 주인이다.
결과적으로 보행로는 본 계획에 있어 주 접근동선이자 안전을 위한 울타리 그리고 천혜의 Open-Space로 쓰여지게 된다.

동선의 관절 – 마당

계획대지는 북측에 폭 15m의 보행로,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열십자 형상의 보행동선 중앙에 놓여있다. 길 만으로는 흥미가 없다.
대지 건너의 보행자 연결동선인 횡단보도의 구조적 단점에 대해 이번 계획안에서는 마당이라는 동선의 관절을 부여해 자연스레 흘러가거나 머무를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기능제안 조형

도로와 열람공간과의 거리, 도로에 대응한 도서관의 동적이면서 개방적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열람공간과 서비스공간의 매개적 요소인 프렌드파크의 배치 등 평면의 구성방식은 특별한 여과 없이 외부조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계획의 전개방향

공공성,개방성

영역의 확장

안전성

수직동선분리

다면적기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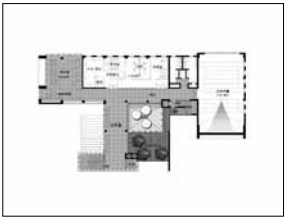
조망의 적극적 분석

옥외공간의 활성

바닥난방시스템

(1층-어린이종합자료코너)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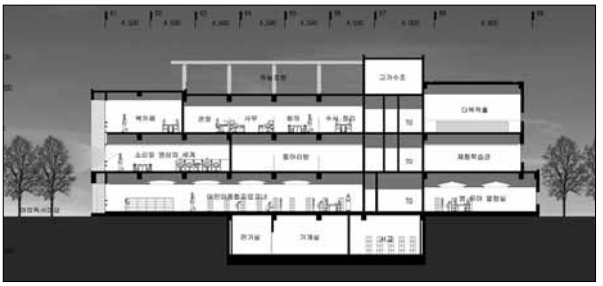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중단면도

화정어린이도서관
Hwajeong Child Library

당선작 / 유한건축사사무소(정승이)

고양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친밀감과 자신감, 창의력을 북돋아 주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존의 외관 지향적인 건립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지적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로서 어린이의 연령단계별 행태적 특성과 사회적응력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전용 시립도서관 설립을 위해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유한건축사사무소' 안을 당선작으로 설정, 발표하였다.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5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서관)
대지면적 1,002.1㎡
건축면적 568.9㎡
연 면 적 1,684.8㎡
건 폐 율 56.77%
용 적 률 139.76%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ZINK, 외벽단열시스템, 목패널, T24로이복층유리, T12 색강화유리
설 계 팀 김규선, 정지한, 양용석, 고하동

공원속 도서관

도서관은 학교와 더불어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 공간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독서습관을 익혀주는 사회서비스적 공간이다. '화정어린이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어린이가 主가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주어진 내부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내·외부 공간적 성격을 어린이의 시·지각적 인지능력에 적합한 계획으로 21세기 어린이 시설의 새로운 전형이 된다.

이번 계획안은 설정된 대지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지 후면에 위치한 공원과 적극적으로 관계하여 "공원 앞 도서관"이 아닌 "공원 속 도서관"으로 도서관과 공원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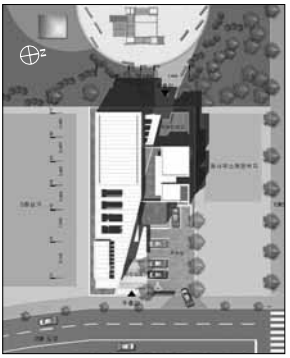
이미지 표현

어린이가 主가 되는 독서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 2가지 요소를 유추하여 접근한다.

하나는 어린이의 심미적(審美的) 성향에서 유추한 '색'으로의 접근이다. 각기 다른 성향과 개성을 지닌 자유로운 작은 인격체, 리드미컬한 색의 조합은 어린이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 또다른 하나는 서가(書架)이미지의 물리적 표현이다.

서가는 책이라는 열매를 담은 나무이며, 도서관은 그 나무들을 품고 있는 숲으로 표현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화정어린이도서관'만의 차별성을 구축하는 대표적 요소가 된다.



배치도

계획전개방향

共有

PATH의 도입

공공성,개방성

진입,안전성

토지의 효율성

동선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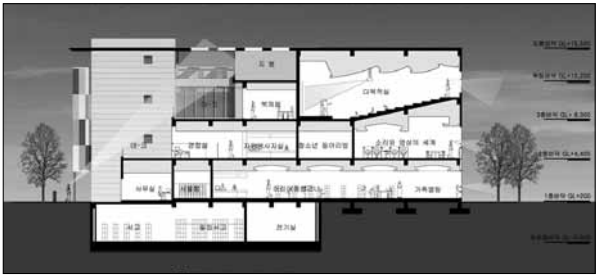
인지성

바닥난방시스템

우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